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소식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조상들과 은인들을 기억하고 다가올 죽음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위령기도를 통해서 신자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위령성월 위령기도 안내
  - 위령성월 동안 매주 주일 미사중 공지사항때, 전 신자분들이 함께 연례회 주도로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기도중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과 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본당 사무담당 기금 마련 가을 음악회 DVD 판매
  - 성가대 가을 음악회를 녹화한 DVD를 사무담당에서 제작, 판매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본당 사무담당 사무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가격: \$5 (CD 1장) / \$9 (CD 2장)
- ◆ 김제준 구역모임 안내
  - 일시: 11/28 (토)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 주소: 8576 Copperview Dr  
Dublin, OH 43016  
(614)218-2662
- ◆ 연례회 모임 변경 안내
  - 일시: 11/29 (일) 미사 후
  - 장소: 사제관

- ◆ 대림시기 구역별 대림환 가정고리 기도안내
  - 11/29(일)부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시기간 동안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구역별로 대림환을 모시고 가정고리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역별 신자분들께서는 구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날짜에 각 가정에 대림환을 모시고 준비되어있는 기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뜻깊은 대림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평일미사 시간 변경안내
  - 11/27(금) 평일미사는 Thanksgiving 관계로 없습니다.
  - 12/4(금) 저녁 7시30분부터 평일미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착오 없시길 바랍니다.
- ◆ 성탄 판공성사표 배부
  -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미사 후, 사무 담당을 통해서 판공성사표를 배부받으셔서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는 대림 첫째주부터 미사 전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와 아리랑 식품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4,8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01.00
교 무 금	\$940.00

- 교무금: 유은주, 안유신, 이석찬, 오은총  
김미영, 김상욱, 이호근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그리스도 왕 대축일 November 22, 2009



<수난당하는 그리스도>, 1248년, 유리화, 생트 샤편, 파리, 프랑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그의 통치는 영원하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 1,5ㄱㄴㄹ-8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요한 18,33ㄴ-37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00단 2명	27,172단 195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00단 2명	22204 - 11/15/09 (297주)

♣ 총누계: 221,160단 12,830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11월 22일	11월 29일
해설자	안유신	서경환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 오늘의 성가

♫ 입당: 78      ♫ 봉헌: 213  
♫ 성체: 166, 186      ♫ 파견: 77

## 진리에 속한 사람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제가 신학생 때 본당의 주임신부님은 성서주간을 시작하며 교우들에게 성경을 매일 한장씩이라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자는 자신의 성경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맨 뒤에 성경을 구입한 날을 기록하고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도 그 날짜를 기록해서 자신이 성경을 얼마나 자주보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게 성경을 못 읽고 잠자리에 들었을 경우 에는 힘을지만 이것만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보고 자주 만지며 입맞춤을 한다면 성경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저절로 우러나올것입니다. 이번 성서주간을 맞이하며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 큰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나이에 맞는 성경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지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한번은 이런 목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당과 지옥에 가는데 그걸 하느님께서 직접 심판하실까?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어느 피정에서 강사 수녀님은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기도서에 있는 성인 호칭기도를 자주 바치고 있었고, 자신이 죽으면 매일매일 기억했던 성인성녀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체험 덕분에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도 심판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살면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졌기에 죽어서도 그를 부르는 두 가지(악령과 성령) 소리에서 분명히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곳이 곧 천당이겠지요. 반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세상의 가치대로 산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 곧 악령의 소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이겠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느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왕이시옵니다.

## 안 내

###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심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 청년 협의회 안내

- 성가대와 레지오가 합쳐져서 청년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 협의회를 이끌어 가주실 간부들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